

봄맞이 장애인부 국립현충원 나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 기쁨은 내가 좋은 것이 나만 좋으면 상대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을 느낄 때

서로 손을 잡는다. 휠체어를 미는 손길 진정 사랑의 손길이다. 4월 15일 주일 오후에 국립현충원으로 지체장애인들 휠체어 나들이를 다녀왔다. 날씨도 화창하고 벚꽃도 활짝 피어 꽃바람 속에 꽃비를 맞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현충원 곳곳에는 봄나들이를 하는 다른 가족들이 많았지만 벚꽃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으로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겼다. 함께한 우리들 혼자 힘으로는 쉽게 걸을 수 없는 길이지만 봉사자와 장애인 식구들 모두 모여 준비한 점심과 더불어 여유로운 오후 휠체어 트레킹으로 길마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벚꽃의 향연과 봄기운이 완연하게 느끼는 귀한 하루를 보냈다. 함께한 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2012년 봄의 추억 같이 남기고 싶다. < 신형섭 기자 >

청년부 부활절 행사



이번 부활절 예배는 특별히 예배드라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는데, 청년들도 배우 및 스탭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여하며 온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청년들은 신

천역으로 나가서 노방찬양과 헌혈을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과도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했을 때 그 메시지가 자신들 안에서 확고하게 내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노방찬양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계란과 사탕을 나누어주어 복음을 전했고, 헌혈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얻게 된 생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 이정민 전도사 >

* 성경_한자로 풀어보기

祈禱(기도)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히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14)

예수님의復活昇天(부활승천)후 列邦(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 것은 오직 기도의 힘이라 하겠다. 우리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에 힘쓰기를 소망하면서 그 의미를 새겨보자.

祈禱(기도, prayer)의 意味(의미)

辭典의 意味(사전적 의미)

바라는바가 이루어지기를 신에게 밝. 또는 그 儀式(의식).

聖經的 意味(성경적 의미)

성도와 하나님의 交際(교제) 혹은 對話(대화).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영혼의 呼吸(호흡)이자 영혼전체로 드리는 禮拜(예배).

文字的 意味(문자적 의미)

★祈(빌 기) : ‘제기, 제사, 神(신)’을 상징하는 示(보일 시. 제사 시)와 ‘밝게 살 피다’라는 뜻이 있는 斤(도끼 근. 날 근방)을 결합하여 “신께서 밝게 살피주시기를 빌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禱(빌 도) : ‘제기, 제사, 神(신)’을 상징하는 示(보일 시. 제사 시)와 ‘오래 살다. 축복하다’라는 뜻이 있는 壽(목숨 수)를 합쳐 “신께서 오래 살도록 福(복)내려 주시기를 빌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다.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교회소식 이모저모

봄꽃을 심으면서



4월 14일 (토) 환경미화팀과 인수집사회에서 교회주변 화단과 정신여고 입구 화단에 튼튼을 심었다. 꽃을 심을 화분을 다듬고 한송이 한송이 튼튼을 옮겨 심으며 진정 봄이 왔음을 느꼈다. 기다리던 봄이 한껏 화려한 날개를 펴고 노란색과 빨간색의 어우러짐 속에서 봄의 소식을 들었다. 꽃을 심으며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느꼈다. 심겨진 꽃을 보면서 마음의 파랑새들이 정말 우리들 마음 안에 있음도 느껴보았다. 정신교정에 심겨진 잔잔한 꽃들과 함께한 우리들 배움의 터전, 믿음의 터전에서 함께 생활하는 정신의 딸들과 예쁜 꽃들을 보며 소망가운데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나날이 늘 행복하기를 기원했다. < 신형섭 기자 >

교구별 피구대회



아침 공기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요즘, 나뭇가지에 하나씩 들쭉 뭉트는 연두색 새잎이 예쁘고 뽕에 닿는 바람이 포근해서 몸을 움직이며 운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금년 5월 5일 무지개 축제를 맞아 4월 15일 4부 예배 후 무지개잔치에 출전

할 교구별 피구대회 예선이 열렸습니다. 9개 교구를 8개 팀으로 나누어 한주에 두 경기씩 4월 29일에 예선 두 경기가 열리며 무지개잔치 당일에 준결승과 결승이 열립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가와 관심으로 즐거운 만남의 축제에 함께 응원도 하며 가정의 달 무지개 축제에서 기쁨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 신형섭 기자 >

사진팀 춘계 야외 촬영 및 팀 워크샵



2012년도 상반기 주님의교회 사진팀 역량 강화 및 춘계야외 촬영을 4월 14일 (토) 점진강 나들길과 화엄사 벚꽃길을 다녀왔습니다. 카메라를 매고 걷는 길, 벚꽃 흐드러진 길에는 새 생명의 탄생 소리 요란하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리에 취해서 건다보면 어느새 우리들 '봄이 뒀을' 느낍니다. 봄날은 여전히 한창이였습니다. 일 년 내내 꽃이 피어 있다면 꽃의 아름다움이나 고마움을 잘 모를 것입니다. 긴 긴 겨울... 잘 견디고 있보다 먼저 피는 봄꽃들. 매화와 벚꽃의 향연 속에 좋은 사람들과 천천히 걷고 맛있는 음식 먹고 사진 찍고 즐거운 이야기기도 하고... 여유 있게 시간을 즐기며 몸과 마음이 느그러워져 더 말할 것 없이 좋습니다. 때로는 일상을 벗어나 여유롭게 하늘을 쳐다 볼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시간 아름답고 멋진 날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주님의교회 사진팀에서는 매년 가을에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사진사역팀장 서정하 기자 010-9554-9715 >

|오늘의 말씀|

“불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_ 록 24 : 49

통 권 _ 제 301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_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2년 4월 29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부활절에서 오순절 성령강림주일까지 ‘기쁨의 50일’의 회복을 꿈꾸며

부활절특별예배 _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4월 8일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교회에서는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특별예배를 드렸다. 5천여 성도가 1부와 2부로 나누어 참석한 가운데 예배드라마 형식으로 진행된 이 예배는, 제1장 빌라도의 재판, 제2장 타락한 세상, 제3장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심, 제4장 제자들을 부르심, 제5장 죄인들의 친구, 제6장 병자들을 고치심, 제7장 풍랑을 잠잠케 하심, 제8장 내가 가는 곳, 제9장 십자가에 달리심, 제10장 부활하심, 제11장 엠마오로 가는 길, 제12장 승천하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온 성도가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의 역사를 함께 하도록 구성된 이 특별예배를 위해 주님의교회 안팎은 2천년 전의 이스라엘로 바뀌는 진풍경을 이루었다.

첫 순서인 빌라도의 재판 장면에서는 김마리아회관 앞뜰에서 실제 예루살렘의 거리와 장터, 빌라도의 재판과 바라바의 석방 장면들을 재현했고, 영상이 그대로 각 예배당의 화면에 비추어지도록 했으며, 장면에 참여한 연기자들이 그대로 본당에 들어와 성도들 사이와 무대를 오가면서 이후의 드라마가 진행되었다. 일반 성도들도 드라마에 참여하여, 연기자를 따라 제자들 이름을 부르고, 떼제 찬양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장

면에 동참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한 흐름으로 보게 되어 특별한 부활절 예배였다고 생각합니다. 장면마다 가슴이 뭉클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 주님의교회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가 특별예배를 함께 했던 조혜경 씨의 말이다. 이 뜻 깊은 사역을 위해, 4개월 전부터 500여 명에 이르는 성도가 기획, 연출, 연기, 조명, 의상, 무대예술 등을 맡아 준비했고, 직접 제작한 의상만 해도 400벌에 이르며, 당일 예루살렘 거리를 재현하기 위해 로마 병정들이 말을 타고 나타나기도 했다. CBS TV는 4월 9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고백이 담긴 한 편의 드라마 예배가 부활절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면서, 이 특별예배의 주요 장면들을 편집해 2분에 걸쳐 보도했고, 이에 앞서 기독교보에서는 4월 3일자 기사를 통해 “주님의교회에서 ‘극적인 예배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복음을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이를 통해 죄에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날 ‘예수 부활 하셨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박원호 목사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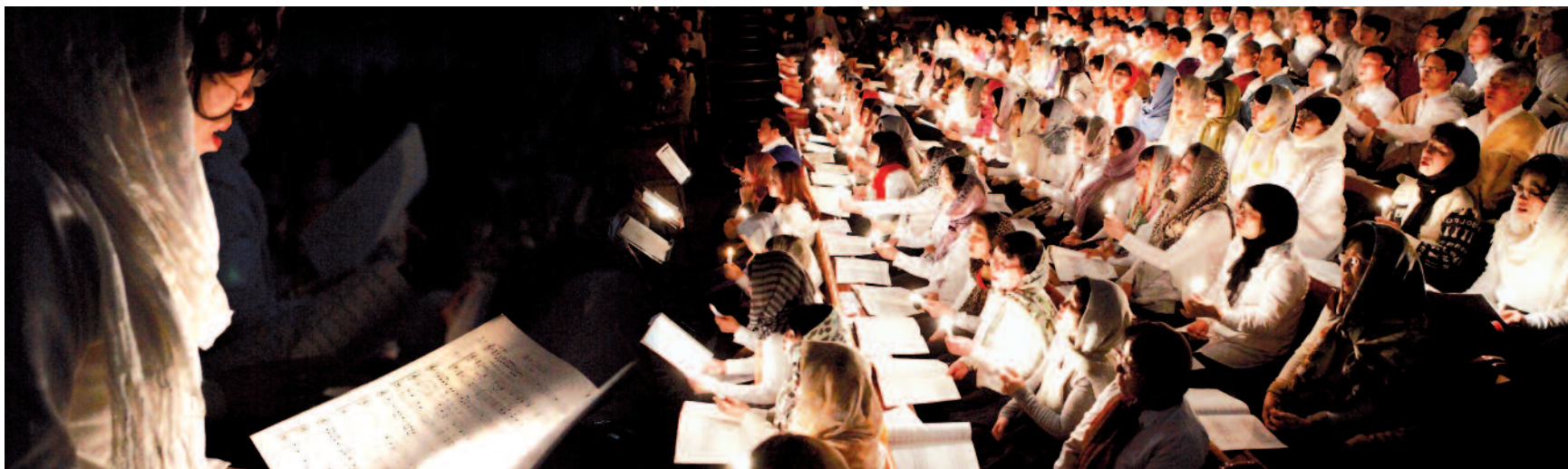
부활절기의 원형을 찾아서 _ ‘기쁨의 50일’

이번 부활절 예배드라마는 부활절 당일만을 위한 행사로 기획된 것이 아니다. 부활절에서 오순절 성령강림까지 이어지는 부활절기 전체의 회복을 꿈꾸며 기획된 예배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드라마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초대교회는 유월절부터 봄 추수를 50일간 기쁨의 절기로 지켜왔던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받아 부활절

이후 50일을 ‘기쁨의 50일’로 지켜왔다. 이런 전통은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린 것과 더욱 깊은 연관이 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수님께 물어본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모든 답변을 뒤로 한 채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다. 십자가와 부활을 눈으로 보고 부활의 몸을 만졌다 하더라도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림이 전제되어야 한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신다.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해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된다.

우리도 기다려야 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제자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너무나 많은 말들을 쏟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해결책을 말하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면 된다.” 이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활의 참된 기쁨을 맛보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부활절을 끝으로 사순절 절기가 끝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부활주일을 끝으로 부활은 사라지고 각종 행사들이 교회를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된다. 지금이야말로 초대교회가 부활신앙을 이어가고자 가장 큰 기쁨의 절기로 지켜왔던 ‘기쁨의 50일’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 편집부 >



주간 목회력

<2012 전교인 무지개잔치>
-5.5(토) / 오전10시 / 대강당,운동장
<교구 대항 피구대회>
-4.29(주일)6:7교구,8:9교구 / 4부예배후

<유아세례 교육>
-4.29(주일) 오후1시반 / 초등부실
<제7기 결혼예비학교>
-5.6~6.3 매주 오후4시~7시반

<제1기 데이트 스쿨>
-5월 매주(목) 오후7시반~9시반
-청년누구나 / 제1집회실(5층)

부활절 예배드라마 소감 모음

저는 6장과 11장에서 병자 역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동생과 함께 나왔습니다. 예배드라마를 마치고 난 뒤 무엇보다도 내가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같이 출연한 오빠, 언니들이 있어서 연습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고 재미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와 기적을 알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6장에서 병자 역을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예전에 아팠던 곳을 치유했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동생도 예전에 아팠던 곳을 치유했을 때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지막에 목사님 손을 잡고 찬양을 불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 다시 하고 싶습니다. _ 아동팀 참가자 11세 김하연

당치가 크다는 이유로 바라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역할과 대사 하나도 없이 단지 풀려날 때 포효하는 소리만 낼 뿐인데, 지난 한 달 동안 나름대로 바라바 소설을 읽고 바라바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하는 과정이 나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_ 바라바 역 조영률



영적 믿음을 순종으로 부활의 희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앎으로 삶이 새로이 변화된 이후에 한시도 감사가 아닌 날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오늘 영광의 부활주일에 화평케 하시는 평화의 성령으로 다시 오신 주님께 한없이 감격하고 찬양합니다. 내면의 죄와 어둠으로 좌절하고 가냘픈 숨을 내쉬는 영혼들에게 좌절의 골짜기를 뛰어넘는 부활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래봅니다. 주님의 삶과 사역이 실천의 본질을 전하는 삶을 알았듯이 우리들 염원의 모두를 행동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활 후에 우리들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신앙으로 살아있는 힘차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_ 한센병자역 신형섭

이제껏 부활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고, 성인이 된 후에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배 드라마를 통해 부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장면에서는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하여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아이들도 열심히 집중해서 보았고,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_ 김천식

보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 장면들이 말씀으로 듣는 것보다 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도 가슴이 뭉클하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은 인간의 모든 고난을 지고 가시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_ 최정원

이제껏 부활절도 성탄절처럼 그냥 교회에서 지내는 행사나 절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번 부활절 예배를 통해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에는 가슴이 저릿하게 아프고, 예수님의 고통과 사랑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_ 정명선

부활절에 주님의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생각지 않게 드라마 형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한 흐름으로 보게 되어 특별한 부활절 예배였다고 생각합니다. 장면마다 가슴이 뭉클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뜻 깊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_ 타교회 방문자 조혜경





전교인 무지개 잔치



언제: 5월 5일 10:00~16:00
어디서: 정신여중고 운동장 및 대강당, 주변
★운동회 ★놀이마당 ★공연

2012 부활절 칸타타 “I AM”



4월 11일 대예배실에서 부활절 기념음악예배가 열렸다. 임마누엘 찬양대 주관으로 <I AM :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테마 아래 17개의 곡이 연주되고 합창과 독창으로 불러졌다. 가사가 스크린에 띄워져서 한 곳 한 곡의 의미를 음미하며 찬양을 들을 수 있었다. 칸타타는 아멘! 아멘! 으로 웅장한 마지막을 장식했으며 2회의 앵콜로 마무리 되었다. 순종하는 어린 양 예수님, 죄인들을 감싸 안은 사랑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 속에 만나는 시간이었다.

< 김주현 기자 >



부활의 묵상

내게는 낯선 그림 하나. 제임스티소가 그린 '부활'이다. 유럽 상류 사회 여인들의 화려한 옷자락을 유난히 탐닉하고 묘사했던 것으로 알려진 티소는 그의 작품 후반기에 '부활'

'을 비롯, 돌연 그리스도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이후 신약 중심의 삽화를 무려 350여 점이나 남겼으며 구약 소묘에 몰두하던 중 죽었다고 한다. 말년의 티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연인의 죽음, 혹은 신비한 신앙적 체험 때문이었다고도 전해지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만났다는 것. 보이지 않는 이 그림의 배경에서 나는 예수를 만난 티소의 부활의 삶을 발견한다. 무덤을 깨고 홀연히 나오신 예수님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하다. 내 영혼을 끌어올려 줄 뼈아픈 말. '부활 그 후,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가슴에 뜨거운 것이 일렁이고 내 속의 내가 다시 묻는다. 이제 내가 그리는 삶의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 김희영 집사 >

땅끝 편지_04

2012년 함글함글에서는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표어에 기초하여 땅끝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어느 무명의 성도님이 어머니 추도예배를 드리면서 작성한 편지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고백하고 치유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hamletter@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편집회의를 거쳐 실어드리겠습니다. _편집자

우리 엄마 자장가

잘자리 우리 엄마 어대무던 사랑겨정
앗드시고 평화로운 하늘나리
영애나, 편하실까.

잘자리 우리 엄마 할이꽃 처럼.

잘자리. 우리 엄마 아들딸들 잘 키워주시
하늘나라 무덤상 몇집이나 받았을고.

잘자리 우리 엄마 꽃속에 나비처럼.

잘자리 우리 엄마 우리끼리는 고문공격에
장동위에 버리던 함박눈 처럼
엄마 똥에 잠들었던 이딸이
엄마뒤를 따라갈 때 까지

잘자리. 우리 엄마. 강은 산속 산새처럼.